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내믹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가입시
 당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easy.co.kr 061320-7700, 7714



정상은 어디쯤...

18일 광주 마우나오션에서 열린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2007' 프로암 경기에서 김미현 선수가 티마크 위에 올라가 코스를 살피고 있다.

■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오늘 개막



박세리



오초아



길비스

박세리 VS 오초아... 첫날 자존심 대결

박세리(30·CJ)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은행 코오롱 챔피언십에서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월드 패셔너블' 나탈리 길비스(미국)와 한 조로 1라운드를 치르게 됐다.

박세리는 18일 발표된 1라운드 조편성에서 오초아, 길비스와 한 조로 19일 오전 10시30분 1번 홀에서 티오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사실상 '챔피언 조'로 짜인 이 조는 '코리안 시스터스'의 맏언니 격인 박세리와 올 시즌 새롭게 '골프 여제'로 등극한 오초아,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길비스를 한 데 묶어 팬들의 관심을 자아내게 됐다.

'슈퍼 탕롱' 김미현(30·KTF)은 바로 앞선 조에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크리스티 커(미국)와 함께

길비스와 함께 한 조에 편성돼

김미현, 크리스티 커와 라운딩

오전 10시19분에 출발한다.

평균 비거리가 271.7야드로 올 시즌 3위를 달리는 장타자 페테르센과 242.9야드로 100위권 밖인 김미현의 대결 양상이 흥미롭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최강의 자리를 굳힌 신지애(19·하이마트)는 오전 10시8분에 올 시즌 LPGA 신인왕 안젤라 박(19·LG전자), 로라 데이비스

(잉글랜드)와 한 조로 편성됐다.

동갑내기인 신지애와 안젤라 박이 함께 치며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이밖에 지난 해 이 대회 우승자인 홍진주(24·SK에너지)는 오전 9시57분 지은희(20·켈러웨이), 로리 케인(캐나다)과 한 조로 묶였다.

또 2005년 우승자 이지영(22·하이마트)은 9시46분 장정(27·기업은행), 마리아 요르트(스웨덴)와 함께 1라운드를 치른다.

이번 대회는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 골프장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3라운드 경기로 치러지며 주요 경기를 MBC와 MBC-ESPN이 생중계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그립 잘 잡는게 가장 중요해요”

■ 최경주 골프 일일교사

“가장 먼저 그립을 봅니다. 잘못된 그립은 나중에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18일 경기도 용인의 코리아골프장 1번홀 티잉그라운드에서 치러진 무대에서 세계골프랭킹 8위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골프 꿈나무’ 어린이 스무 명을 모아 놓고 일일교사에 나섰다.

한국프로골프 신화동해오른 출전을 위해 고국을 찾은 최경주는 우승으로 마무리지는 신화동해오른이 끝난 뒤 스킨스게임과 나이키골프, 제일은행 고개과 만남, 그리고 광고 촬영 등 숨겨진 일정을 소화해내는 틈에 어린이를 짬냈다.

SC제일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를 받아 18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선발한 어린이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의 구력 1년에서 4년 사이의 20명.

이들은 ‘제일은행 최경주 프로의 어린이 골프 교실’ 진행에 앞서 최경주와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멋있었다”, “실제로 본 게 처음인데 이따 꼭 사인해주세요”라며 신바람을 냈다.

한 어린이는 “생각보다 잘 생겼는데 진짜 최경주 선수냐”고 물어봐 폭소를 자아냈고 최경주는 “원래 잘 생겼다. 진짜라니까”라고 미소로 화답했다. 레슨에 나선 최경주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정신력을 강조했다.

“어떻게 골프를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운을 뗀 최경주는 “어린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쉬 때도 꼭 쉬고, 그리고 골프 연습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경주는 “골프 연습할 때는 아무런 잡념 없이 집중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명 한 명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레슨에 들어간 최경주는 ‘골프채를 쥐는 방법, 즉 그립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스무명에게 예외없이 그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쳐줬다.

최경주는 평소에도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술을 그립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날 최경주에게 레슨을 받은 어린이들은 대부분 느슨한 그립이거나 톱스윙 때 그립을 살짝 놔다가 다운 스윙 때 힘을 쥐어잡는 결점을 발견했다. 즉석에서 그립을 교정해주자 어떤 어린이들은



18일 오전 경기도 용인 코리아CC에서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SC제일은행 초청으로 어린이 골프 클리닉을 개최, 어린이 골퍼의 그립을 교정해주고 있다.

평소와 달라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손가락이 벗겨지는 ‘사고’도 일어났지만 최경주는 “이번에 바로 잡아놓으면 앞으로 골프를 잘 치게 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동경해오던 대스타에게 직접 레슨을 받은 어린이들은 “너무 좋다”면서 “오늘 배운 걸 평생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전남 전국체전 엠블럼·마스코트 등 확정

2008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동안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상징물이 확정됐다.

내년도 전국체전에 공식 사용될 상징물은 대회 구호를 비롯해 표어,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등 모두 5종이다.

이 가운데 체전 엠블럼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땅 전남에서 200만 도민과 한민족이 손잡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민주화합 체전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마스코트는 전남도의 캐릭터인 ‘남도’와 ‘남이’를 응용했다. 성화를 짝한 ‘남도’의 주먹은 녹색의 땅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기백을 나타내고, ‘남이’의 상냥한 얼굴은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함을 표현했다.



<엠블럼>

<마스코트>

내년 전국체전은 여수 진남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전남도 18개 시·군과 광주시 일원 61개 경기장에서 41개 종목이 열린다.

/박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앤서니 김·나상욱 ‘골프 유망주’

美 인터넷사이트 골프닷컴 선정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과 나상욱(23·코브라골프)이 미국 골프전문 인터넷사이트 골프닷컴이 선정한 25세 이하 골프 유망주 10명에 이름을 올렸다.

골프닷컴은 18일 홈페이지에 유망주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앤서니 김이 2위, 나상욱은 8위에 뽑혔다.

이 사이트는 “오를라호마대를 나와 2006년 프로로 전향한 앤서니 김은 첫 대회였던 텍사스오픈에서 공동 2위를 했다. 이번 시즌 투어에서 가장 어린 신인인 그는 상급 랭킹 51위에 올랐고 신인 중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릴 때 골프클럽을 안고 잤으며 부모는 그가 올 때면 골프중계를 하는 TV 앞에서 데려다 봐 줄음을 그치게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8위에 선정된 나상욱은 “2002년 아시안투어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2003년 Q스쿨을 통해 투어에 입문, 2004년 상급랭킹 87위에 오르며 성공적인 투키 시즌을 보냈다”고 소개했다.

카브레라 극적인 역전 우승

PGA 그랜드슬램

US오픈골프대회 챔피언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가 4개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 거두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그랜드슬램대회에서 지옥과 천당을 오간 끝에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썼다.

카브레라는 18일(한국시간) 버뮤다의 미드오션골프장(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쳐 2라운드 합계 4언더파 136타로 브리티시오픈 우승자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과 공동 선두를 이룬 뒤 연장전을 벌여 우승컵을 안았다.

당해 시즌 메이저대회 우승자 4명을 초청해 치르는 이 대회는 PGA챔피언십 챔피언인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하지 않아 맥 폴린 대회로 전락했다. 2003년 US오픈을 제패한 류릭이 우즈 대신 출전했다.

우즈는 1998~2002년 대회 5연패에 이어 2005년과 작년에도 우승을 차지해 무려 7차례나 우승을 휩쓸었으나 올해는 발, 아내와 휴가를 보내기 위해 불참했다.

박성화호, 시리아와 비겨

올림픽 본선행 낙관 못해

시리아 원정에서 답답한 무승부에 그친 박성화호가 중동의 북병 바레인에 턱밀 추격을 허용해 올림픽 본선 진출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23세이하(U23) 올림픽축구 대표팀은 지난 17일 밤(이하 한국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알 아바세엔 경기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4차전에서 중동의 북병 시리아를 맞아 답답한 공격만 퍼붓다 득점없이 비겼다.

반면 바레인은 18일 오전 바레인 마나마 국립경기장에서 끝난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4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2-0으로 완파했다.

3승1패(승점 9)가 된 바레인은 이로써 3승1무(승점 10)로 조 선두인 한국을 승점 1차로 바짝 추격했다. 바레인은 골득실에서도 +3으로 박성화호와 같아졌다.